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221-267  
<https://doi.org/10.29212/mh.2023..129.2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7세기 전반 신라 신주의 재편과 海門 당항성의 관방 체계\*

정덕기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新州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3.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
  4. 海門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海防 체계
  5.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6~7세기 전반 신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신주의 재편 과정과 당항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한 것이다. 당항성은 신라-중국을 잇는 뱃길의 시작점, 즉 신라의 ‘海門’이었다.

신라는 555~558년 대종 외교 창구로 당항성을 두었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신주의 재편과 연관되었다. 568~603년의 신주 주치는 南川이었다. 648년까지 당항성 관방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주요 적국으로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상정하고, 남천-國原小京 간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항성의 陸防 체계는 648년까지 기본 방향을 유지하나, 627·643년 백제가 신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강화되었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는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할 수 있다. 당성 일대 도서는 방어·경계 등 해방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內海’를 설정한 후, 이를 5개 해역으로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주제어 : 당항성, 新州, 海門, 海防, 가상의 2중 內海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3, 게재확정일 : 2023. 11. 4.)

## 1. 머리말

신라는 중고기에 對中 外交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고기 전반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은 학술·문화 교류 및 정치 등이었다. 중고기 후반 신라는 고-수 전쟁을 이용해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켰고, 對隋 外交의 주요 목적을 請兵으로 전환하였다.<sup>1)</sup> 중고기 후반~중대 초 신라는 對唐 請兵 外交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신라의 대당 외교 활성화 요인은 여러이나, 중요 요인의 하나에는 당항성의 운영·유지가 있다. 당항성은 歸唐之路·入朝之路·貢道 등으로 불리는 신라-당 간 뱃길의 시작점, 즉 신라의 海門이었다.<sup>2)</sup> 당항성 관련 지명은 党(棠)項城 등 표기를 달리한 거점 명칭, 党項津·唐恩浦 등 항구 명칭, 唐城(恩)郡 등 행정구역 명칭, 唐城鎭 등 군사 시설 명칭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성군·당은군은 고려 이후 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로 이해되었고<sup>3)</sup>, 党(棠)項城의 위치 비정은 조선 후기 지리지부터 이루어졌다. 『東國地理志』는 ‘德物島 앞 당항진’을 고려해 당항성을 南陽府 일대라 하였다.<sup>4)</sup> 『海東釋史續』은 신라-당의 교통

1)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a)).

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 冬 11월; 『新唐書』 권220, 列傳185, 東夷, 百濟, [太宗 貞觀 16년(642)], 6199; 『宋贊寧』, 『宋高僧傳』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義湘傳.

3) 『高麗史』 권56, 地理1, 楊廣道, 仁州, 唐城郡. “唐城郡,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 改爲唐恩郡.”;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本高句麗 唐城縣, 新羅改爲唐恩郡, 高麗復古名.”; 『新增東國輿地勝覽』 권9, 京畿, 南陽都護府, 建置沿革. “本高句麗 唐城郡. 新羅 景德王改唐恩. 高麗 初, 復舊名.”

4) [朝鮮]韓百謙, 『東國地理志』, 新羅, 形勢·關防, 棠項城. “或稱, 棠項津, 中原朝貢之

로가 南陽海를 경유하므로, 남양에 가깝고 棠項과 음이 유사한 獐項口縣, 즉 安山郡(현 경기도 안산시)에 비정하였다.<sup>5)</sup> 『大東地志』는 신라 邊界인 黨項城을 본래 백제성으로 보아 남양 일대에 당항성·당성진을 비정하고, 현 唐城 유적을 당항성의 古蹟이라 하였다.<sup>6)</sup>

당항성의 위치에 대한 『대동지지』의 비정은 근대 사학에 계승되었다. 역사지리학의 시각에서 조선 후기 지리지 기록과 1980년 경까지의 고고 자료를 비교해 당항성을 당성에 비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7)</sup> 1998·2000년 당성 1·2차 발굴을 통해 당항성·당성 관계가 검토되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 일부 구간, 건물지(성 안 평탄지), 북문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 당성은 토성보다 석성이 먼저 축조되었고, 통일신라~조선시대에 바다를 통한 교역거점으로 쓴 성이며, 당항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졌다.<sup>8)</sup> 2차 발굴조사에서는 당성 本城 성벽(北門址~推定望海樓址) 중 북벽 구간, 성 안 최정상 평탄대지를 조사하였다. 이 결

路. 百濟嘗與高句麗合, 謀奪棠項城, 絕中原往來之路. 愚案. 蘇定方之來, 新羅太宗王出次南川, 卽今 '利川'. 世子 法敏以兵船, 迎定方於德物島, 以此見之. 所謂棠項津, 似在今南陽府. 無明文可考, 不敢強解.”

- 5) [朝鮮]韓鎭書, 『海東釋史續』 권7, 地理考7, 新羅 城邑, 棠項城. “【鎭書】謹案. 棠項城者, 新羅通唐之路也. 當時通唐, 每由南陽海, 則棠項城. 當在南陽近地, 據新羅地志, 今, 安山郡, 本獐項口縣, 棠·獐, 音近, 所謂棠項, 似是安山也.”
- 6)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4, 京畿道, 南陽. “沿革. 本百濟 黨項城. 新羅 景德王十六年, 改唐恩郡. …… 城池. 唐城古縣城. 【府東. 周三千七百七十七尺.】 唐城古鎮城. 【西二十里. 周二千四百十五尺.】 …… 石山城. 【西三十三里. 周二千九百五尺.】”;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30, 歷代志, 方輿總志2, 新羅. “統合前疆域. …… 善德主十一年, 百濟與高句麗謀, 欲取新羅 黨項城, 以絕歸唐之路. 【『地理志』云. “黨項城, 似是, 今, 南陽.” 按. “唐城, 是黨項城之改號. 仁川府之龍流島 西岸, 有石墩, 名朝天臺, 疑朝唐時, 發船於此.”】 …… 【按. “據此, 則自德源·安邊緣金城, 鐵原·永平·積城·楊州·喬桐·江華·仁川·南陽·振威·水原·安城·鎭川·淸州·文義·沃川·茂朱·安義·雲峯, 皆其邊界.”】 營鎮. …… 唐城鎮. 【南陽.】”
- 7)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1980).
- 8)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208-209.

과 당성은 內(本)城·外城·子城 등을 갖춘 복합식 산성이 아니라, 외성(7세기 전후 구봉산 정상부~서쪽 능선 정상부를 감싸는 테 피식 석축성)→본성(9세기경 구봉산 정상부~동쪽 능선 사면에 축조한 포곡식 토석혼축성) 순서로 축조되었고, 본성은 829년 唐城鎮 설치와 맞물린 산성으로 추정되었다.<sup>9)</sup>

2015~2019년 3~6차 당성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성에서 ‘唐·本彼謀·漢山·館宅’명 기와, 백제 양식 토기·중국산 백자, 삼국~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발견되어 당성·당항성의 관계, 본 피부·한산주와의 관련성, 1차성 축조 이전 집단 및 신라-당 교류와 당성의 관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 1차성은 6~7세기에 초축되어 나말여초에 폐기하였고, 2차성은 1차성 일부를 활용해 구봉산 급경사면을 따라 확장해 축조했다고 한다. 2차성은 고려 초 전면적인 성벽 증축, 고려 중기·말기에 부분적으로 개·보축되었고, 조선 초까지 왜구 침입을 대비하는 방어성으로 기능했다고 알려졌다.<sup>10)</sup>

1980년의 역사지리학적 성과와 1998·200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 견해가 널리 수용되며<sup>11)</sup>, 신라사 속

9)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査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243-245·255-256.

10)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계 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1~6차 발굴조사의 성과는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위의 책, 2021, 31-36·164-176’에 정리되어 있다. 2020~2021년 1차성 내 기단 건물지를 조사해 2023년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1차성 축조 후~통일 이전 기단 건물지에는 기단 건물지와 별도로 용도 미상의 시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 통일 후 조성된 기단 건물지는 불교 관련 시설 혹 당성과 그 일대를 관할한 관청 관련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3, 242·247-248, 253-254).

1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 -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323; 화성

당항성의 명칭·역할, 643년 당항성 전투, 당항성 일대 방어체계·경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라는 진흥왕 15년(554) 관산성의 대승으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흥왕 25년(564) 北齊에 사신을 보내며 처음 당항성을 썼다고 추정된다. 당항성은 서해 중부 횡단 항로(신라도)의 기점이다. 당항성의 명칭은 党(項)城郡(고구려, ~551년)→党(項)城郡(신라, 551~668년)→唐城郡(681~692년 이후)→唐恩郡(742~765년 중 개명)→唐城郡(829년)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唐恩郡 조, 551년 고구려의 한강 유역 상실, 618년 당의 건국, 668년 삼국통일전쟁, 神文王대(681~692) 신라-당 교류, 景德王대(742~765) 지명 개정, 興德王 4년(829) 唐城鎮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견해이다.<sup>12)</sup> 또 당은군은 대당 교류를 기초로 ‘당의 은혜를 받거나 입는 지역’이고, 聖德王대(702~737) 활발한 대당 교류가 이루어지며 경덕왕대에 黨項城을 당은군으로 개명했다고 한다.<sup>13)</sup>

党項城이란 표기가 발생한 이유를 善德王代(632~647) 신라-당 관계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고구려에서 당항성을 부른 명칭은 알 수 없다. 신라는 618년~경덕왕 개명 이전까지 대개 ‘당으로 가는 길목(項)’이란 뜻에서 당항성을 唐[項]城으로 불렀다. 668년 党項城·党項津은 대당 항로의 출발지·종착지로 기능한 신라의 關門城·關門港이며, 唐[項]城과 党項城은 모두 당성을 말한다. 다른 표기인 党項城은 7세기 중엽 기사에만 집중적으로 보이며, 선덕왕 즉위 초 신라-당 관계에서 유래하였다.

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122-126-127.

12)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2013): 157-165.

13)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2015): 12.

‘党·党項·党項羌’은 수·당대 탕구트를 가리킨다. 당은 太宗 貞觀 원년(627) 탕구트 통제를 시작해 정관 5년(631) 탕구트를 상당히 장악하였다. 당은 정관 8년(634) 토욕혼 원정에 탕구트를 동원하나, 정관 9년(635) 탕구트와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 627~635년은 진평왕 말~선덕왕 초이며, 당은 선덕왕이 즉위하나 책봉하지 않았다. 여왕인 선덕왕은 정통성·정당성이 부족해 당의 책봉이 필요하였고, 633년 탕구트 관계 정보를 입수하였다. 선덕왕은 唐項을 党項으로 고쳐 당의 탕구트 장악을 축하하고, 당의 동방진출에 신라의 역할을 환기해 책봉을 받아냈다. 党項은 삼국통일전쟁기까지 고유명사로 쓰이나, 삼국통일 후 당성군의 치소가 산성에서 평지로 바뀌며 党項이란 표기도 소멸되었다.<sup>14)</sup>

643년의 당항성 전투는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 麗·濟 連和의 실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당항성(진)은 신라의 대중 외교의 출항지·입항지이다. 신라가 인천·강화·평택 등 주변 지역을 확보해 대중 海路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당항성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동 공격을 여·제 연화의 계기로 본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5)</sup>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분리해 이해하기도 한다. 백제는 642년 7~8월 신라 왕도를 위협하였고, 643년 신라-당의 연결을 끊고자 당항성 공격을 도모하였다. 여·제 연화는 분명하지 않지만,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 일대 신라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공조를 통해 당항성 공격을 상당 기간 준비하였다.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에 유출되

14)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2016): 62-83.

15)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2015): 148-153·158-163. 이 글에서는 당항성 주변의 주요 관방 유적으로 평택 일대 비봉·자미·무성 등 산성을 지목하였다.

었고, 643년 11월 신라는 당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전하며 구원을 청했다. 백제는 전격적인 당항성 공격이 어려워지자, 당항성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 철병하였다.<sup>16)</sup> 또 외교사적 관점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 당항성 전투를 이해하기도 한다. 신라-당의 연결을 끊기 위한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 유출되자, 신라는 당에 사신을 급파하였다. 643년 9월 4일 신라의 구원 요청과 당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643년 11월 당 사신 상리현장의 도착으로 신라의 대당 청병을 인지한 백제가 당항성에서 철병했다고도 한다.<sup>17)</sup>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신라의 날조에 가까운 전략적 외교술로 보아 당항성 전투를 보기도 한다. 당시 백제의 공세는 신라 下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당항성에 대한 백제의 발병·철병은 조공로 차단과 관련된 작은 전투·국지전을 신라가 당에 전달한 결과로, 신라의 일방적 주장 외 실체가 없다고 한다.<sup>18)</sup>

당항성 일대의 방어체계·경관 등은 신라의 안성·용인 진출과 당성의 관계를 위주로 논의되었다. 죽주산성, 장원리·반제리 고분군 출토 고고 자료는 신라가 555~567년 당항성 방어를 위해 안성 지역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안성은 직산-이천을 북동-남서로 연결해 이천·남양만 방어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sup>19)</sup> 당성 동쪽 백곡리 사지·산성 일대는 삼국~남북국시대 중요 항구도시로 기능한 대규모 취락이 있었고, 당성 남쪽 상안리 유적 I·II는 굴고개를 쓴 교통로와 연결되며, 백곡리 구릉 지대에 있던 白寺는 사신·구법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sup>20)</sup> 당성

16)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2019): 25-31.

17)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2022): 2-7.

18)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194-200.

19)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2017): 195-206.

과 용인 할미산성·석성산성의 관계도 검토되었다. 할미산성은 6세기 중반~7세기 중반에 쓰였고, 할미산성의 축조 목적은 이천-용인-화성 간 교통로 확보, 동-서 교통로 통제, 탄천·경안천 유역 감제이다. 석성산성은 늦어도 8세기대 할미산성 방어를 보강하고자 축조되었다. 석성산성 축조 후 할미산성은 폐기되지 않아 두 산성이 함께 쓰였을 수도 있다고 한다.<sup>21)</sup>

최근 7세기 당항진·당항성을 삼전도·삼전도 배후 성으로 보고 한강 항로 속 당항진·당항성의 낮은 위상 등을 설명하기도 하나,<sup>22)</sup> 당성 3~6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신라의 자료, 7세기에 당항진을 서울 동쪽에 둔 이유, 당항성의 구체적인 위치, 당항성-新州·漢山州의 州治 관계, 1관직-복수관위제와 鎭 책임자의 상당위 관계 등 문제를 설명하지 않아 동의가 어렵다.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 선행연구는 당항성의 위상·역할·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나, 신주의 재편 과정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항성은 천혜의 요새이자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 시작된 공간이었다. 660년 德物島에서 소정방·김법민이 접선하고, 668년 党項津에서 유인궤·김인문이 접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국통일전쟁 당시 당군의 첫 기착지가 덕물도·당항성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삼국통일전쟁 개전 당시 신라는 당군의 손실을 피해야 하였다. 덕물도·당항성에서 소정방·유인궤를 맞은 이유는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상당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항성

20)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2019).

21)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2020): 90-95.

22)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당성(唐城)’ 설 비판과 ‘한강(漢江)’ 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2021);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항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2022).

은 신주 소속이므로, 당항성과 신주의 관방 체계는 관련이 있겠다.

이 글은 군사사적 시각에서 6~7세기 전반 신주의 재편과 해문 당항성의 관방 체계가 맺는 관계를 海防 체계 위주로 살펴볼려 한다. II장에서는 신주의 재편 과정에서 당항성을 둔 시점과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논의하겠다. III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 陸防 체계의 강화에 대해 정리하겠다. IV장에서는 해문 당항성 일대의 도서 환경을 분석하고, ‘가상의 2중 內海’를 활용한 당항성의 海防 체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 글이 당항성 및 신라의 해방 체계를 논의할 때 기초 검토로 쓰이길 기대한다.

## 2. 新州의 재편과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 구축

신라는 551년 9월 백제와 공조해 竹嶺 以外~高峴 以內에 있던 고구려의 10郡을 취했고<sup>23)</sup>, 553년 7월 백제 故土인 동북 변경(鄙) 6郡을 취해 新州를 두고 阿淪 金武力을 軍主로 삼았다.<sup>24)</sup> 신주는 나제동맹의 완전 파기, 백제 적대를 전제로 취한 한강 유역의 새(新) 영역이었다. 553년 신주의 영역은 서해안에 닿지 않아, 당항성을 포괄하지 못했다.<sup>25)</sup> 신라는 554년 7~12월의 관산성 전투를 통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였다.<sup>26)</sup>

23)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551);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년(551) 秋 9월; 『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柒夫【或云, 荒宗】[眞興大王] 12년(551) 辛未.

24)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553) 秋 7월;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聖王 31년(553) 秋 7월.

25)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29-37.

26)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177-207.

554년 이후 신주는 서해안 일대와 당항성을 포괄하는 행정구역으로 확대·재편되므로, 이에 수반한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 진흥왕본기에서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A로 인용하였다.

A-①. 겨울 10월. 왕이 北漢山에 순행해 封疆을 拓定하였다. 11월.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지나온 州·郡의 1년간 租·調를 면제하고, 曲赦하여 2罪 외 죄수는 모두 사면하였다.<sup>27)</sup>

A-②. 比列忽州를 두고 沙滄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sup>28)</sup>

A-③.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두었다.<sup>29)</sup>

A-④. 귀족 자제와 6부의 豪民을 국원소경에 옮겨 채웠다. 奈麻 身得이 砲弩를 만들어 바치니, 그것을 성 위에 설치하였다.<sup>30)</sup>

A-⑤. 北漢山州를 폐하고 南川州를 두었다. 또 比列忽州를 폐하고 達忽州를 두었다.<sup>31)</sup>

2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6년(555). “冬 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

28)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7년(556) 秋 7월. “置比列忽州, 以沙滄 成宗爲軍主.”

2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8년(557) “以國原爲小京. …… 廢新州, 置北漢山州.”

3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9년(558) 春 2월. “徙貴戚子弟, 及六部 豪民, 以實國原. 奈麻 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3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9년(568) 冬 10월.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又廢比列忽州, 置達忽州.”

A-①은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인 555년 10월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封疆을 拓定하였고, 11월 북한산에서 경주로 돌아오며 순행에 수반되는 절차가<sup>32)</sup>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A-①에서 “拓定封疆”이 주목된다. 대체로 “拓定”은 “확정하다”<sup>33)</sup>, “넓혀 정하다”로 새기나<sup>34)</sup>, “평안히 하였다(平定)”가 타당한 해석이다.<sup>35)</sup> 즉 “拓定封疆”은 “영역을 평안히 하였다”란 의미이다. 이것은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관산성 전투 약 1년 뒤, 진흥왕이 북한산까지 순행해 신주 주·군의 정비·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목적·중점은 무엇일까? 신주는 551년 얻은 10군, 553년 얻은 6군을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신라는 관산성에서 백제 가용병력 대부분을 살획하므로<sup>36)</sup>, 554년 이후 한강 하류·서해안 일대를 장악하였다. 따라서 555년 “拓定封疆”은 553년보다 확대된 신주의 주·군 정비·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신주 영역 중 정비·안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553년 얻은 6군과 554년 이후 새로 얻은 지역이다. 553년의 6군 획득은 551년 획득한 10군의 안정에 기초하며, 554년 이후 새로 확보한 지역은 6군 인접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55년 북한산 순행과 “拓定封疆”은 신주 서북 지역 주·군의 정비·안정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후 신주는 계속 정비되었다. A-②는 556년 비열홀주를 설

32) [後漢]蔡邕, 『獨斷』 上, 40-42. “幸者, 宜幸也. 世俗謂幸, 爲僥倖. 車駕所至, 民臣被其德澤以僥倖. 故曰幸也. 先帝故事, 所至見長吏·三老·官屬, 親臨軒作樂, 賜食·帛·越巾·刀·珮·帶. 民爵有級數, 或賜田租之半, 是故謂之幸, 皆非其所當必而得之.”

33) 김부식 지음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6, 95.

34)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정보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149.

35) [南宋]劉義慶, 『世說新語』 26편, 輕詆 16조, 31-32. “桓公欲遷都, 以張拓定之業”

36) 聖王대 백제의 가용병력, 관산성 전투의 동원병력에 대해서는 정덕기, 앞의 논문 (2022), 14-17·31 참고.

치하고 책임자를 둔 기사이다. 비열홀은 현 강원도 安邊에 비정된다.<sup>37)</sup> 556년 비열홀주의 영역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주는 州治 기준으로 몇몇 郡·縣을 배속시킨 것이다. 556년 비열홀주는 신라가 551년 취한 10군 일부를 기반으로 성립했을 것이므로, 신주의 동북 郡·현 일부는 556년 비열홀주로 이관되었다. 이것은 신주의 관할 범위 축소와 남은 신주 영역에 주치의 행정력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A-③은 국원소경의 설치와 신주 주치가 북한산(현 서울)으로<sup>38)</sup> 이동함을 보여준다. 553년의 신주 주치는 알기 어렵지만, 남천(현 이천)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39)</sup> 善德王 6년(637) 한산주·수약주 분리 전 신주의 주치는 ① 남천(진흥왕 14년(553)) → ② 북한산(진흥왕 18년(557)) → ③ 남천(진흥왕 29년(568)) → ④ 북한산(진평왕 26년(604)) 등으로 변화하였다.<sup>40)</sup> 553~637년의 85년간 신주 주치가 유지된 기간은 북한산·남천이 45년간·40년간이므로, 북한산·남천은 신주 주치 후보지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이다. 신주 주치의 변화는 국원소경과 연결되고, 신주 설치의 목적은 국원소경의 전방거점 확보이므로<sup>41)</sup>, A-③은 북한산~남천~국원소경 사이 지역의 정비·안정과 직결되었다.

A-④는 국원소경에 貴戚子弟·6부 豪民을 사민해 국원소경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砲弩 등 신무기를 배치해 국원소경의 방비를 확충했음을 보여준다.

A-⑤는 568년 신주·비열홀주 주치가 남천·달홀로 이동하였음

37)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朔州, 朔庭郡. “本 高句麗 比列忽郡. 眞興王 十七年·梁 太平 元年爲比列州, 置軍主.”

38) 장창은, 앞의 책, 2014, 172-178.

39)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100-109.

40)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2009): 13-15.

41) 정덕기, 앞의 논문(2022): 38-45.

을 보여준다. 달홀은 현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에 비정된다.<sup>42)</sup> 이것은 신라 북방에 둔 2주의 주치가 이전 주치보다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신주의 주치가 남천으로 이동하며 주치의 행정력은 남천 일대에 강도 높게 투사되었다. 이상 신주의 정비·안정과 관련된 조치는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권역에 적용되었다.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 일대의 관방 체계를 구축한 시점은 언제일까? 『삼국사기』, 지리지는 党項城을 비정하지 않았고<sup>43)</sup>, 당은군은 한주의 9번째 군으로 2개의 領縣을 설명하나 경덕왕 이전 당은군과 2개 領縣의 연혁은 소략하게 서술하였다.<sup>44)</sup>

당항성을 둔 시점은 진흥왕의 대중 외교가 활성화된 시점을 참고할 수 있다. 진흥왕은 564년 북제에 사신을 보냈고<sup>45)</sup>, 북제 武成帝는 565년 2월 甲寅(1일, 565.03.18)에 진흥왕을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sup>46)</sup> 564년 출발한 신라 사신은 북제의 수도인 鄴에 도착하였고, 565년 2월 1일 무성

42)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302.

43) 『三國史記』 권37, 雜志6, 地理5, 三國有名未詳地分. “党項城.”

44) 『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漢州. “唐恩郡. “本, 高句麗 唐城郡 景德王改名. 今, 復故. 領縣 二. 車城縣 本, 高句麗 上【一作, ‘車’】忽縣 景德王改名. 今, 龍城縣 振威縣 本, 高句麗 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권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唐城郡 上忽【一云, ‘車忽.’】釜山縣【一云, ‘松村活達.’】”

4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5년(564). “遣使北齊朝貢.”; 『北齊書』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3년(564) 是歲, 93. “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 『北史』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3년(564) 是歲, 285. “高麗·靺鞨·新羅並遣使朝貢.”

4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6년(565) 春 2월. “北齊 武成皇帝 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北齊書』 권7, 帝紀7, 世祖 武成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94.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北史』 권8, 齊本紀 下8, 世祖 武成皇帝 河清 4년(565) 2월 甲寅, 285. “詔, 以新羅國王 金眞興, 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이하 中·西曆 환산은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歷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참고.

제가 내린 조서를 받아 진흥왕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진흥왕은 복제에 1회, 진에 5회의 사신을 보냈고, 진에서도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진흥왕은 564년부터 대중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므로,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점은 564년이다.

신주의 정비·안정과 관련된 조치, 당항성이 활발히 운영된 시점을 고려하면, 555~564년의 10년 사이에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 일대의 관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관 조치는 555~558년에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A-①~④는 연속성이 있고, 북한산~남천~국원소경을 포괄하는 범위에 작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A-⑤는 A-①~④와 10년의 시차가 있고,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이후에 나타난 조치이다. A-⑤는 555~558년 대중 외교 창구로 둔 당항성이 활성화되자, 신주 주치를 당항성과 가까운 남천으로 옮겼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항성 관방 체계의 변화는 신주의 주치 변화와 연결되며,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신주의 주치는 553~556년, 568~603년의 40년간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은 555~558년에 두어 564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당항성 설치 및 당항성 운영이 활성화된 시기에 신주의 주치·주치정은 남천에 있었다.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의 36년 동안 남천-국원소경 위주 관방 체계에 편입되며 골격이 잡혔다. 6세기 중후반 용인 할미산성 등이 당항성~남천 간 교통로에 축조된 것 등은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 3.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

555~558년에 둔 당항성은 564년부터 대중 외교 창구로 활성화되었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는 568~603년 남천-국원소경의 관방 체계와 맞물려 골격이 구축되었다. 신라의 대수·대당 외교는 594·621년부터 전개되었다. 한편 신라는 진평왕 47년(625) 11월 고구려의 朝貢路 차단을<sup>47)</sup>, 선덕왕 11년(642) 7월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시도를 당에 거론하였다.<sup>48)</sup> 신라의 대중 외교는 중고기 전반에 시작되나, 고구려·백제가 신라의 대중 외교를 차단하려 한 것은 중고기 후반이다. 당항성은 신라 대중 외교의 창구이므로, 이상의 흐름은 당항성의 위상 및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와 연동되었다. 본 장에서는 신주·한산주 남부의 위협과 당항성의 陸防 체계 강화를 위주로 논의하겠다.

진흥왕 29년(568)~진흥왕 흥거년·진지왕 원년(576)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진지왕 2~4년(577~579) 신라·백제는 추풍령로에서 각축하였다.<sup>49)</sup> 진지왕 흥거년·진평왕 즉위년(579)~진평왕 19년(597)의 삼국은 국가별 내부 사정상 본기에 기록할만한 큰 전쟁이 없는 시기, 즉 소강·휴전기를 맞았다.<sup>50)</sup> 소강·휴전기의 영향은 진평왕 23년(601)까지 지속되었다.

4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48)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8월.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49)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2009): 145-149.

50) 정덕기, 앞의 논문(2021(a)): 15-17.

이후 신라는 진평왕 24년(602)·25년(603) 백제·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 1차 아막성 전투(602)는 신라·백제의 大會戰에서 신라가 승리한 전투였다.<sup>51)</sup> 북한산성 전투(603)는 진평왕이 친히 兵 1만을 이끌고 북한산성을 구원해 승리했지만,<sup>52)</sup> 604년 신주 주치가 북한산으로 환원되는<sup>53)</sup> 계기로 작용했다고 이해된다. 이후 신주·한산주 주치는 계속 북한산에 있었다.

568~603년 당항성의 관방 체계, 특히 육방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지리적으로 당항성은 백제와의 접경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기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주요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었다. 당시 백제는 당항성 등 한강 유역보다 추풍령로·아막성 등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며, 기본 방향 수정 및 육방 체계 재편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나,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대개 유지되었다.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04년 신주의 주치 환원은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항성-남천-국원소경의 방어체계는 36년간 구축한 산물이었다. 당항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이상,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많지 않았다.

둘째, 604년 이후 백제의 주요 공격은 신주·한산주 방면이 아닌, 下·上州 방면에 집중되었다. 武王의 신라 공격은 하주 방면 진출이 주요 목적이고, 간간히 상주 방면을 공격하였다. 신주·한

51) 602년 아막성 전투의 전황은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 85(2012)’ 참고.

52)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5년(603) 秋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 以拒之.”;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4년(603).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眾我寡, 恐不克而退.”

53)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6년(604) 秋 7월.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산주 방면 공격은 勒努縣(괴산) 전투에 불과하다. 백제는 신라가 북변·서변의 고구려·백제를 함께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굳이 신주·한산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의자왕대 對新羅戰은 648년까지 무왕대의 전략이 유지되고, 649년부터 신주·한산주 방면 공격이 진행되었다.<sup>54)</sup> 이상에서 적어도 648년까지의 신라는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많지 않았다.

다만 604~648년 당항성 육방 체계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무왕의 웅진 주둔(627),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모의(643)가 있어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B를 보자.

B-①. [627] 백제 將軍 沙乞이 [百濟本紀：新羅] 西鄙 2성을 함락하고 남녀 300餘口를 잡아갔다. [百濟本紀：①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아가(出) 熊津에 주둔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그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당에 급함을 고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곧 그쳤다.]<sup>55)</sup>

B-②. [642] 가을 7월. 백제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大) 일으켜 나라 서쪽 40餘城을 공격해 취하였다. 8월. [백제왕 의자가] 또 고구려와 더불어 党項城을 취해 당으로 가는 길(歸唐之路)을 끊고자(絶) 모의(謀)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唐] 太宗에게 급함을 고하였다.<sup>56)</sup>

54) 박종욱, 앞의 논문(2022): 189-193.

5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9년(627) 秋 7월. “百濟 將軍 沙乞, 拔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28년(627) 秋 7월. “王命將軍 沙乞, 拔新羅 西鄙 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羅王 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5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11년(642). “秋 七月. 百濟王 義慈, 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百濟王 義慈]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B-③. [642] 가을 7월. [의자]왕이 친히 군사를 통수해 신라를 침범하고, 獼猴 등 40餘城을 떨어뜨렸다(下).<sup>57)</sup>

B-④. [643] 겨울 11월. [의자]왕이 또 고구려와 新羅 黨項城을 취해 [신라의] 入朝하는 길을 막고자(塞) 하였다. ㉞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당항성(=之)을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어 당에 구원을 청하였다. ㉟ [의자]왕이 그것을 듣고 병사를 파하였다.<sup>58)</sup>

B-⑤. [643, ㉠ 淵蓋蘇文列傳 : 마침(會=643년 3월)] 가을 9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言)[淵蓋蘇文列傳 : 告]. “백제가 우리나라 40餘城을 공격해 취했습니다. 다시 고구려와 병사를 합쳐 入朝하는 길을 끊고자(絕) 모의(謀)하였습니다. [㉡ 蓋蘇文列傳 : 小國이 부득이 군사를 내려 합니다. 다. 앞드려 바라건대 병사를 빌려 구원해 주십시오.”<sup>59)</sup>

B-①은 627년 7월 백제 장군 沙乞의 신라 서쪽 변방 2성 함락,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을 보여준다. 신라본기는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평왕이 당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이 무력시위로 끝났기 때문이겠다.

B-①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王遣使, 告急於太宗.”

57)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2년(642). “秋 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58)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義慈王 3년(643). “冬 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 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 德曼 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59)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秋 九月. 新羅遣使於唐, 言.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乞兵救援.””; 『三國史記』 권49, 列傳9, 蓋蘇文. “會新羅入唐, 告. “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絕入朝之路. 小國不得已出師, 伏乞天兵救援.””

B-①-④는 무왕이 “신라가 침탈한 땅을 되찾고자(欲復新羅侵奪地分)” 대병을 웅진에 주둔했다고 하므로, 무왕의 공격 목표는 신주나 신주 남부이다. 554~627년 신라는 대개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이 기간 신라의 백제 공격전은 3회이다. 578년 알야산성 및 605년 백제 東鄙 공격은 실패로 보이며, 618년 椴岑城 전투는 611년 백제가 뺏은 가잠성을 신라가 수복한 전투이다.<sup>60)</sup> 따라서 B-①-④의 “신라가 침탈한 땅”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신주·신주 남부뿐이다. 626년 신라·백제는 고구려의 조공로 차단을 당-삼국 간 외교 문제로 삼았고<sup>61)</sup>, 진평왕은 무왕의 군사행동을 “遣使告急於唐”으로 대응하였다. 즉 무왕의 주요 공격 목표는 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긴 시간 동안 육방 체계를 구축한 당항성이 포함되었다. 무왕은 사건의 서쪽 변경 2성 함락을 통해 신라의 방어병력을 서쪽 변경으로 집중시킨 후, 대병으로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를 뺏으려 하였다. 그러나 진평왕이 당에 개입을 요청하자 무왕이 철병하였고, 무왕의 웅진 대병 주둔은 대병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무왕이 당항성 등 신주·신주 남부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으므로, 이 사건은 당항성의 육방 체계 강화 계기로 작용하였다.

B-②·④~⑤는 643년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기사로 자료별 시점과 사건의 실체가 분분하다. B-②의 642년 7월은 『舊唐書』, 百濟傳을 옮기다 발생한 杜撰이며, 643년 사건이

60) 611·618년 1~2차 가잠성 전투의 전황은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椴岑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2023): 173-183 참고.

6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7년(625) 冬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48년(626) 秋 7월. “唐 高祖 遣朱子奢來, 詔諭與高句麗連和.”;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27년(626). “遣使入唐, 獻明光鏡, 因訟高句麗梗道路, 不許來朝上國. 高祖遣散騎常侍 朱子奢, 來詔諭我及高句麗平其怨.”

라 한다.<sup>62)</sup> 신라본기는 B-② 이후 642년 겨울 김춘추가 고구려에 請兵使로 갔으므로, 사건 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sup>63)</sup> 당 자료에서 B-②와 유사한 기사는 『資治通鑑』만 전하며, 643년 9월 庚辰에 서술되었다.<sup>64)</sup> 淵蓋蘇文列傳은 이 기사의 시점을 “會”라 하고,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한 기사에 이어 썼다. 고구려본기는 643년 3월 연개소문이 당에 도교를 청했다고 하고,<sup>65)</sup> 643년 9월에 B-⑤를 썼다. 백제본기는 643년 11월에 B-④를 썼다. 이로 인해 9월은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 시점, 11월은 당항성을 공격한 백제의 철수 시점이라거나<sup>66)</sup>, 9·11월에 신라가 견사할 수 있고, 특히 11월은 백제의 공격과 신라의 견사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상정하기 어렵다고도 한다.<sup>67)</sup> 또 백제·고구려의 연화는 백제의 해명이 있었으므로, 신라가 외교적으로 날조한 일방적 주장 및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형 사건이다. 당항성 공격은 백제의 단독 계획이며, 11월은 백제의 신라 조공로 차단을 위한 작은 전투·국지전이 발생해 신라의 견사를 듣고 철수한 시점이라고 한다.<sup>68)</sup>

B-②·④~⑤는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일대의 단독 공격,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62)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1997, 서울: 一潮閣, 23.

63) 박윤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 15.

64) 『資治通鑑』 권197, 唐紀13, 太宗 貞觀 17년(643) 9월 庚辰(4일, 643.10.21), 6204. “新羅遣使言, “百濟攻取其國四十餘城, 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乞兵救援.”

65)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2년(643) 3월. “蘇文告王曰, “三教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教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教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王喜, 取僧寺館之.”

66) 윤성환, 앞의 논문(2019): 29-31; 최희준, 앞의 논문(2022): 5-6.

67)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2021): 12-14.

68) 박종욱, 앞의 논문(2022): 194-200.

“遂發兵攻之·王聞之罷兵”(B-④), 백제의 여제연화 부인<sup>69)</sup> 등을 고려하면, 백제는 단독으로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철병하였다. 이것은 627년 사건의 신라 서비 2성 함락 후 무왕의 응진 대병 주둔·철병과 전쟁 수행방식이 유사하다. 백제는 642년 신라 서쪽의 미후성 등 40餘城을 함락하고, 신라가 서변에 방어력을 집중하는 틈에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당의 개입을 통해 위기를 타파하려 하였고, 백제는 당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철병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 공격은 실효를 얻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643년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엮은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642년 8월 대야성 함락으로 신라는 백제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동맹·원병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사로 파견되었다. 둘째, 고구려는 신라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 신라의 청병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신라는 당과의 동맹 및 당의 원병이 필요하였고, 당은 백제·신라보다 고구려 정벌에 관심이 많았다. 신라는 공세를 펼치는 백제와 청병을 거절한 고구려를 한통속으로 몰았다. 또 당이 신라를 도와주면, 신라는 당의 고구려 정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추었다.

신라가 당에 고한 급박한 상황은 나라 서쪽 40여성 함락과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모의뿐이며, B-②·④~⑤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연개소문열전에서 신라의 원병 요청은 “신라가 먼저 군사를 낼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졌다(B-⑤-⑥). 신라는 최대 위기인 대야성 함락을 은폐하며 급한 일만 도와달라는 형태로 당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B-②·④~⑤가 나타났다.

69) [唐許敬宗 篇, 『文館詞林』 권664,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 一首, 251. “前得新羅表, 稱王與高麗每興土眾, 不遵朝旨, 同侵新羅. 朕便疑王必與高麗協契. 覽王今表, 及問康信, 王與高麗, 不爲阿黨.”

643년 백제의 공격 규모는 알기 어렵지만, 이 사건으로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강화되어야 하였다. 642년 신라는 백제에 의해 서쪽의 40여성·대야성을 잃었고, 고구려는 신라의 청병을 거절하였다. 백제가 당항성 등 한산주·한산주 남부에 대한 공격의도를 드러낸 이상, 신라는 당항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백제는 649년부터 전략을 전환해 한산주 남부에 공세를 집중하나,<sup>70)</sup> 신라는 당항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것은 604~648년 2회에 걸쳐 당항성의 육방 체계가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4. 海門 당항성의 도서 환경과 당항성의 海防 체계

본 장에서는 당항성 일대 도서 환경을 위주로 海門의 의미와 당항성의 海防 체계를 논의하겠다. C와 <그림 1>을 보자.

C-①. 승려 義湘은 俗姓이 朴이고, 鷄林府 사람이다. …… 나이 弱冠에 이르자, 당(唐土)에 敎宗이 鼎盛하다고 들어 元曉法師와 함께 서쪽으로 유학(西遊)할 뜻을 같이하였다. 가서 ‘本國의 海門과 唐州의 境界’에 이르러 巨艦을 구하길 계획하고, 장차 滄波를 넘고자 하였다.<sup>71)</sup>

C-②. 당의 의상은 新羅國 鷄林府 사람이다. 나이 弱冠에 중국의 敎法이 융성함을 알고, 곧 同志 元曉法師와 책을

70) 박종욱, 앞의 논문(2022): 212-220.

71) [宋]贊寧, 『宋高僧傳』 권4, 義解篇2-1, 唐新羅國義湘傳. “釋 義湘, 俗姓, 朴. 雞林府人也. …… 年臨弱冠, 聞唐土敎宗鼎盛, 與元曉法師, 同志西遊. 行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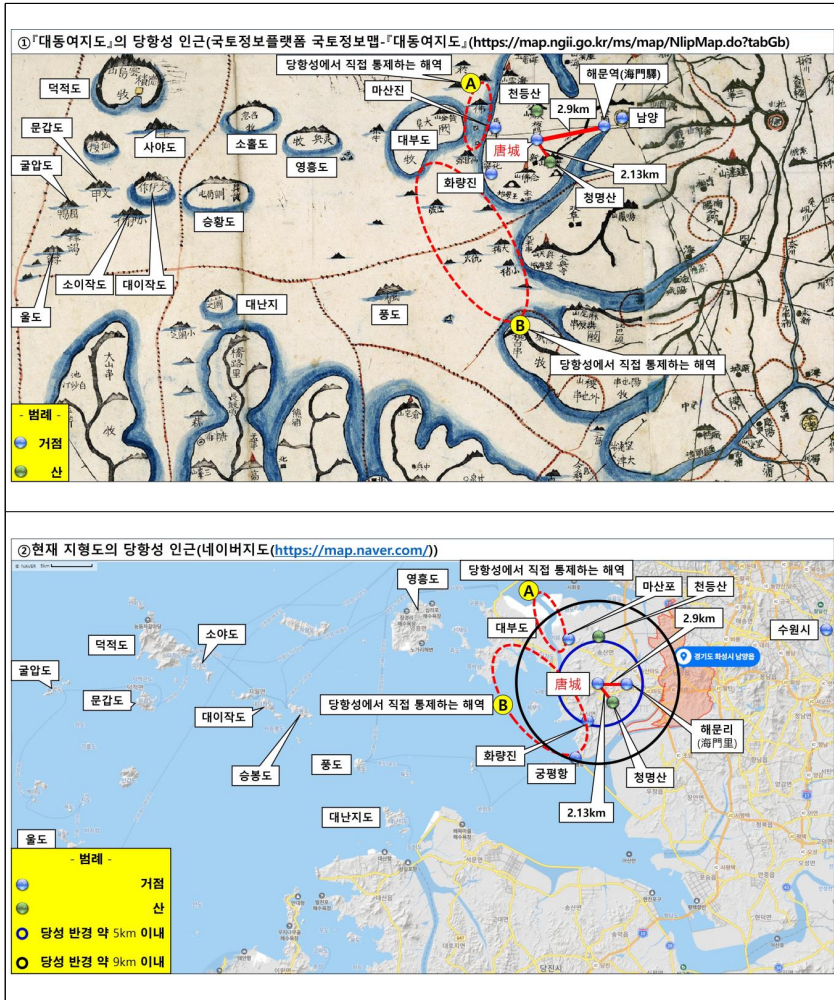
지고 서쪽(西)으로 갔다. 이윽고 海岸을 따라가니(遵), 말하기를 ‘唐州’라 하였다.<sup>7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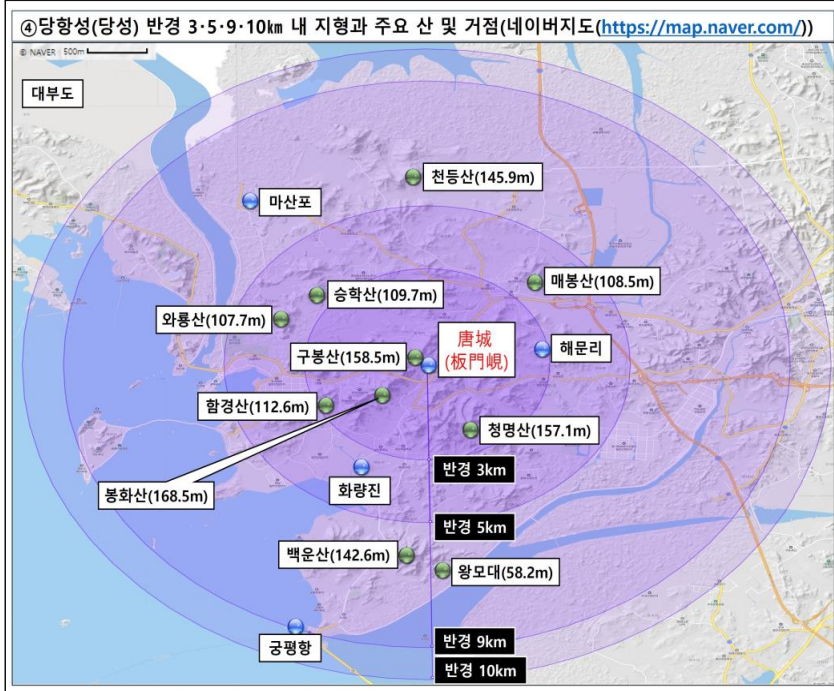
C-③. ㉠登州에서 동북쪽으로 항해해 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를 거치면 300里이다. 북쪽으로 烏湖海를 건너 馬石山 동쪽 都里鎮에 이르면 200里이다.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灣·烏骨江을 거치면 800里이다. ㉢또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해 烏牧島·貝江口·椒島를 거치면, 新羅 西北 長口鎮에 도착한다. ㉣또 秦王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를 거치면 1,000里이고, 鴨淥江·唐恩浦口에 이른다. ㉤또 동남쪽 육로로 700里를 가면, 新羅 王城에 도착한다.<sup>73)</sup>

72) [元]曇噩, 『新修科分六學僧傳』. “唐 義湘, 新羅國 鷄林府人也. 年弱冠, 稔聞中國教法之盛, 乃與同志元曉法師, 負笈而西. 既遵海岸, 曰唐州者.”

73) 『新唐書』 권43下, 志33下, 地理7下, 1147.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 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 二百里. 東傍海濡, 過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灣·烏骨江 八百里. 乃南傍海濡, 過烏牧島·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 又過秦王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 千里至鴨淥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七百里, 至新羅 王城.”

〈그림 1〉 당성 일대의 지형-『대동여지도』·네이버 지도 중 지형도·구글어스





※ 출전 및 모본지도 : 지도별 상단 표기.

C는 『宋高僧傳』·『新修科分六學僧傳』 중 의상의 入唐 과정 일부, 『新唐書』, 地理志의 당-신라 간 뱃길 관계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그림 1〉은 당항성 일대 도서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C-①·②에서 의상·원효는 海岸을 따라(遵)(C-②) 신라 海門인 唐州의 경계로 갔고, 巨艦을 구해 서해를 건너 당(中國·西·唐土)에 가려 하였다(C-①). 문장 구조상 해문은 당주의 별칭이다(C-①). 두 승려는 해안을 따라 당주 경계에서 큰 배를 구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해문인 당주의 끝은 바다에 접해 큰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신라 자료에서 唐州란 지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인조 12년(1634) 편찬된 洪聖民의 『拙翁集』은 단종 3년(1455) 남양의 지리서로 편찬된 『[남양]계고요람』을 인용하여 당주를 唐恩郡의 별칭이라 하였다.<sup>74)</sup>

『대동여지도』는 남양 앞까지 바다가 들어옴을 보여주며, 역참인 海門을 표기하였다. 해문은 현 화성시 마도면 海門里이다. 해문리는 약 500년 전 조차를 활용해 산간 저지대에 있는 마을 입구를 배로 출입하였다거나, 海門仇火驛이 있어 유래한 이름이라 한다.<sup>75)</sup> 해문은 1861년에 당성 반경 약 3km까지 바다가 들어옴을 보여준다. 당성은 간척 전 조차가 심해 구봉산 일대까지 바다가 들어와 섬으로 변했다. 당성 동쪽은 육지·갯강이 분리되어 육지와 가깝고, 썰물 때는 육지와 소통이 원활했다고 한다.<sup>76)</sup>

『대동여지도』는 당성 근처에 板門峴을 표기하였다. 당성은 남양 반도에서 천등산-청명산 간 교통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당성이 있는 구봉산은 높이 158.5m로, 봉화산(높이 168.5m) 외

74) [朝鮮]洪聖民, 『拙翁集』 所引 [朝鮮]宋後 등 撰 / 趙仲旻 교정·편집, 『[南陽]稽古要覽』. 『[南陽]府, 古號唐恩郡 又稱唐州』 유관 서지는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검색일 : 2023.06.16) 참고

75) 화성시, “海門里·海門驛”,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검색일 : 2023.06.16).

76) 황보 경, 앞의 논문(2015): 154.

남양반도의 모든 산 중 가장 높다. 당성이 구봉산에 있는 이유는 구봉산·봉화산의 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 남양반도 조망에 무리가 없고, 반경 3km 이내 산들의 중심에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성은 대부도~마산포 간 수로(〈그림-1〉-①·②-④), 대부도~제부도~궁평항 일대 해역(〈그림-1〉-①·②-⑤)을 항상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 이상에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海門이었다.

진흥왕이 대중 외교 창구를 당항성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C-③과 당항성의 해양 지형을 고려해 생각해보자. C-③은 唐德宗 貞元 연간(785~805) 재상을 지낸 賈耽이 801년 『古今郡國縣道四夷述』을 찬진하며 四夷述에 쓴 『皇華四達記』(일명 『道里記』)의 「登州海行入高麗渤海」 逸文에 기초한다.<sup>77)</sup> 『고금군국현도사이술』은 762~764년 ‘당→발해→신라→당’으로 사행한 唐使 韓朝彩의 견문에 기초하므로<sup>78)</sup>, C-③은 8세기 중반 登州(山東省 蓬萊)~경주 간 교통로를 보여준다.

등주~경주 간 길은 廟島列島~道里鎮(㉑)→老鐵山水道~長山列島~烏骨江(㉒)→烏牧島~신라 북쪽 長口鎮(㉓)→秦王石橋~唐恩浦口(㉔)→당항성 동남쪽 700리 되는 육로(㉕)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5개 구간 중 ㉑는 장구진에서 진왕석교~마전도~고사도~득물도를 거쳐 당은포에 가는 길로, 웅진반도(장구진)~남양반도(당항성)를 잇는다. 장구진은 장산곶 남동쪽 呑叉浦(장연군 해안면 구진리)<sup>79)</sup>, 진왕석교는 웅진반도 일대<sup>80)</sup>, 마전도·고

77)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1994, 197-200.

78) 이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2008): 300-302.

79)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2022): 19-29.

80)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북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2019): 147.

사도는 교동도·강화도<sup>81)</sup>, 대청도·연평도<sup>82)</sup>, 경기만 일대 섬에 비정된다.<sup>83)</sup> 덕물도는 덕적도이다. C-③의 해로는 당항성(당성)이 종점이며, 일찍부터 쓴 길이다.<sup>84)</sup> 따라서 당항성 설치 당시 신라-중국 항로도 이와 유사하였다.

서해안을 장악한 진흥왕이 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가 아닌 남양반도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산주·수악주 분리(637) 전 신주 주치는 북한산·남천을 옮겨 다녔고, 중고기 주치에는 停을 두었다. 강화만~경기만~서울에 대중 외교 창구를 두면 2가지 장점이 있다. 남한강을 통해 충주로 연결되고, 유사시 주치정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왕은 당항성을 대중 외교 창구로 선정하였다. 당항성(진)·덕물도는 660년 백제 공격을 위해 신라 병선 100척-당군이 합세하고, 668년 고구려 공격을 위해 신라-당군이 합세한 지점이다.<sup>85)</sup> 따라서 당항성(진)·덕물도는 삼국통일전쟁의 실질적 개전 지점이었다. 또 663년 백제부흥운동 진압을 위한 당의 대군도 덕물도를 거쳐 웅진에 들어갔다.<sup>86)</sup> 반면 강화도의 穴口鎮은 下代인 文聖王 8년(844)에 두므로<sup>87)</sup>, 당항성보다 개발이

81) 內藤雋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京都: 弘文堂書房, 1927; 『朝鮮史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61, 373-374.

82)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249-250.

83)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서울: 일조각, 2012, 179.

84)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21(2011): 109.

8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660) 6월 21일庚寅. “王遣太子 法敏, 領兵船一百艘, 迎定方於德物島.”;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3, 義慈王 20년(660) 6월 [21일庚寅]. “蘇定方引軍, 自城山濟海, 至國西 德物島.”;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668) 6월 12일乙丑. “遼東道 安撫副大使 遼東行軍 副大總管, 兼熊津道 安撫大使 行軍總管 右相 檢校太子左中護 上柱國 樂城縣 開國男 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 沙滄 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 金仁問, 延迎之以大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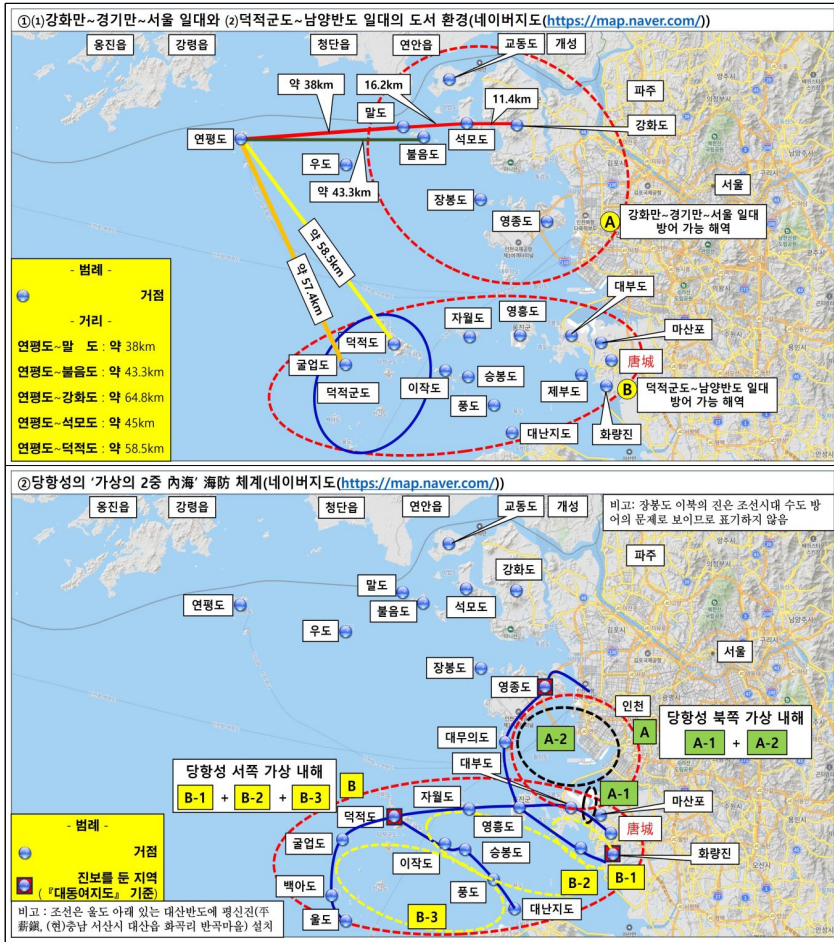
86)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3년(663) 5월.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 乃請益兵, 詔遣右威衛將軍 孫仁師, 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87)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 文聖王 6년(844) 秋 8월. “置穴鎮, 以阿食啓弘爲鎮頭”

늦었다. 또 당곳(唐串) 등 당과의 교류를 전제로 형성된 지명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남양반도에 더 많이 남았다.

이것은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와 해방 체계를 설명하고자 <그림 2>를 작성하였다.

<그림 2> ① (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 ② 당항성의 海防 체계



〈그림 2〉-①은 (1)강화만~경기만~서울 일대, (2)덕적군도~남양반도 일대의 도서 환경·방어 가능 해역을 표기한 것이다. (1)의 방어 가능 해역은 교동도~말도~석모도~강화도~장봉도~영종도를 잇는 범위(㉠)로, (2)의 방어 가능 해역은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군도~대난지도~남양반도를 잇는 범위(㉡)로 상정된다. (1)·(2)의 방어 가능 해역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는 ㉠보다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은 말도~장봉도~영종도가 사선을 이루어 방어 가능 해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불음도~장봉도 간 섬이 적어 방어 거점이 많지 않다. 반면 ㉡는 덕적군도 및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각각 서쪽과 북쪽에서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고 있다. 또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가 일종의 자연 전선을 이루어 넓은 해역을 반분하고 있다.

둘째, ㉡는 ㉠보다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2)보다 (1)이 대중 교류에 유리하다. ㉠과 ㉡의 가장 西端에 있는 섬은 말도와 굴업도·백야도이나, 섬의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하면 대중 항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서단의 섬은 불음도와 덕적도로 판단된다. (1)·(2) 중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던, 중국으로 향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1)·(2)에서 출발할 때의 대중 항로를 구성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강화만~경기만~서울에서 중국으로 항해를 출발하면 불음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한다. 이 항로는 현 개성·연안읍·청단읍·강령읍·옹진읍 등과 같은 지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나가며, 고구려의 위협·감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부도→영종도를 지나 (1)에 진입해 강화도→석모도→불음도를 거쳐,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다른 하나

는 대부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를 거쳐, 덕적도에서 연평도→옹진반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전자는 (1)에서 출발하는 항로와 큰 차이가 없다. 후자는 덕적도까지 서쪽으로 향해하다 연평도로 북상하는 항로로, 당항성에서 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항로이다.

(1)·(2)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의 조건은 대개 유사하나,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따라서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1)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 항로보다 약간 길다. 그러나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는 지점을 강령읍·옹진읍 등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피해야 할 때는 (1)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유리하다.

고구려는 신라가 서해안을 장악한 후에도 한강 유역을 공격하거나, 신라 사신을 위협하였다. 603년 고승의 북한산성 공격이나, 진덕왕 2년(648) 入唐한 후 신라로 귀국하던 김춘추를 살해하려는 시도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신라-당 사이의 뱃길은 「乞師表」 등 중요 國書·조공품·회사품 등이 授受되어 가치가 큰 정보·물자가 유통되나, 고구려의 위협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였다.<sup>88)</sup> (1)에서 출발하는 경로보다 당항성에서 출발하는 경로는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축소할 수 있었고,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 등이 더욱 유리하였다. 660·668년 덕적도·당항성(진)에서 신라와 당이 합세한 이유는 신라-당 연합군의 軍期·목표 등을 고도로 감추며 공격을 실행하려는 의도 등과 직결되겠다. 이상에서 (1)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2)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았고, 대중 외

88)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廠(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38(2021(c)): 116-118.

교 창구로 더 적절한 지역은 남양반도를 한눈에 조망하며 통제할 수 있는 당항성이었다.

진흥왕은 당항성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상세 보고를 북한산 순행과정에서 받았다고 판단된다. 554년 관산성 전투 후 신주의 재편을 보여주는 사건은 555년 북한산 순행 당시의 “拓定封疆”이다. 진흥왕의 북한산 순행 경로에 당항성의 포함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경유한 주군(所經州郡) 및 그 인근 주군은 지역별 중요·상세 정보를 진흥왕에게 보고했다고 이해된다. 진흥왕은 유관 정보를 비교하여 555~558년 당항성을 설치·개발하였고, 564년 이후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당항성은 언제부터 ‘海門’이라 불렸을까? 신라 대중 외교·교류의 활성화는 중·북부 서해 장악과 연관되므로, 船府署를 처음 둔 진평왕 5년(583)이 주목된다.<sup>89)</sup> 선부서는 中代 船府의 前身으로, 수군의 軍政權을 장악해 신라 水軍·兵船軍의 운용, 海運을 관장하였다. 또 선부(서)는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었다.<sup>90)</sup> 선부서 설치의 관할 해역의 증대를 반증하므로, 583년 이후 당항성을 해문으로 불렀다고 이해된다. 이후 중고기 전반 신라인의 중국 유학이 성행하고,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학술·문화 교류에서 請兵으로 전환되며<sup>91)</sup> 당항성은 ‘신라의 海門’이란 위상을 굳혀갔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었을까? 신라는 마립간시기에 “設關守備” 위주의 거점 방어를 육방 전략의 하나로 수립하였고, 이것은 海防에 통용되었다. 상고기 말 우산국 정벌은 동해

8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5년(583) 春 正月.

90) 정덕기, 앞의 논문(2021(c)): 113-121.

91) 정덕기, 앞의 논문(2021(a)): 17-38;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경산: 도서출판 온샘, 2021(b), 57-78.

에 해방 거점을 마련해 공세적 방어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기 말의 대외방어전략은 중고기의 대외방어전략으로 계승되었다.<sup>92)</sup> 따라서 당항성의 방어체계는 <그림 2>-②-A·B에 포함된 섬을 규모에 따라 방어·경계 거점으로 삼아 구축되었다. <그림 2>-②-A·B에 포함된 섬을 연결하면, 당항성 서쪽·북쪽에 일종의 ‘가상 內海’ 2곳이 설정된다. 신라는 가상 내해별로 2·3개의 해역을 나누어 海防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된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그림 2>-②-A)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의 대부도~남양반도 해역(A-1), 영종도~대무의도~대부도 해역(A-2)으로 세분된다. 전자는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북쪽에서의 진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후자는 A-1을 방어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그림 2>-②-B)는 당항성 기준 반경 10km 안·밖과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세분된다. 대부도~제부도~궁평항(B-1) 해역은 당항성 반경 10km 안의 당항성 직접 통제 해역으로, 당항성 서쪽에서의 침입을 차단하는 최종 관문이다. 영흥도~자월도~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해역(B-2)은 B-1을 방어한다. 덕적도~굴업도~백아도~율도와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 간 해역(B-3)은 B-2를 방어한다.

‘가상의 2중 內海’는 몇몇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두어 관리했다고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을 덕적도에, 전초기지를 당항성 서쪽 외곽에, 대중국 교역항을 마산포·화량진에 두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sup>93)</sup> 660·663년 덕적도·당항성(진)에 기항한 신라 병선 100척과 당의 대군을 고려하

92)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2020).

93) 황보 경, 앞의 논문(2015): 150-151.

면, 덕적도에는 병선 100척이나 대군이 기항·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대동여지도』의 ‘鎭堡’ 위치가 주목된다. 『대동여지도』는 덕적도·紫燕島(현 영종도)·화랑진에 성이 없는 진보를 표기하였다. 조선 영조 16년(1740) 덕적도에 덕적진을 두며, 덕적진은 덕적도 남서쪽에 있는 진리 해변 서측 일대~비조봉 입산로 초입(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대)에 위치한 만 형태의 지형에 있었다고 추정된다.<sup>94)</sup> 자연도의 진보는 본래 南陽都護府의 永宗浦萬戶를 읍기며 둔 것이다.<sup>95)</sup> 또 마산포는 바로 앞에 있는 漁島로 인해 큰 바다에서 부는 바람·파도를 막기에 유리하고, 다른 곳 대비 수심이 깊고 조차가 적다. 마산포는 신라-중국의 교역로로 알려져 있고, 제물포 개항 이전 가장 번창한 포구였다.<sup>96)</sup> 이상에서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은 덕적도·화랑진이나 덕적도·화랑진·마산포에 두었다고 이해된다. 당항성 북쪽·서쪽에 설정된 가상 내해를 5개의 해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점, 해문 당항성의 위상·중요성을 고려하면, 신라는 2~3개 지점(덕적도와 화랑진 혹은 마산포)에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켜 당항성을 방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제동맹의 완전 파기를 전제로 신주를 둔 신라는 중고기 전반부터 최대 판도를 누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sup>97)</sup> 555~558년 ‘가상의 2중 內海’를 골격으로 삼은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항성이 해문의 위상을 가진 것은 583년

9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190-198.

95)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南陽都護府. “關防, 二. 永宗浦,【在府南, 水軍萬戶守禦】花之梁.【在府西, 右道水軍僉節制使守禦.】;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권4, 京畿道, 永宗浦鎮. “孝宗 四年. 移南陽 永宗浦 萬戶, 于紫燕島.”

96) 화성시, “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 (검색일 : 2023.06.18).

97) 정덕기, 앞의 논문(2022).

이후이다. 따라서 ‘가상의 2중 內海’를 쓴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583년 이후 구축되었고, 삼국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면서 강화·완비되었다.

## 5. 맺음말

신라의 당항성은 대중 외교 창구이며, 海門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성이다. 본고에서는 6~7세기 신주의 재편과 관방 체계의 변화과정에 기초해 당항성의 관방 체계 변화를 살피고, 당항성의 해방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신라는 나제동맹을 활용하여 551년 고구려의 10군을 취했고, 553년 나제동맹을 파기하며 백제의 고지인 6군을 취해 신주를 두었다. 553년의 신주는 남한강·북한강 일대 16군을 위주로 성립했지만, 서해안에 연접하지 않았다. 신라는 554년 7~12월 관산성 전투에서 대승해 한강 하류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였다. 555년 이후 신주의 확대·재편이 지속되므로, 신주의 지방통치체제·방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555년 진흥왕이 북한산에 순행해 단행한 “拓定封疆”은 신주의 정비·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신주가 재편되며 비열홀주 분리, 신주 주치 이동, 국원소경의 설치·개발·방어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555~558년 신라는 당항성을 두고 당항성의 관방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564년 이후 신라의 對南北朝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므로,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당항성의 운영이 활성화되자, 568년 신주의 주치는 남천으로 이동하

였다.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이 있자, 604년 신주 주치는 북한산으로 환원되었다. 568~603년의 36년간 신주 주치는 남천에 있었고, 당항성 일대 관방 체계의 골격은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568~603년 당항성 陸防 체계의 기본 방향은 백제를 방어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천-국원소경 방어체계와 연동하는 것이다. 이 기간 백제는 신주 방면을 공격하지 않아,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백제는 649년 이후 신주(한산주) 방면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였다. 따라서 648년까지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어 당항성 육방 체계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604~648년 당항성의 육방 체계는 2회 이상 강화되었다. 627년 무왕이 웅진에 주둔하고, 643년 의자왕이 한산주 남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모두 신라의 서쪽 변방에 대한 공격을 성공한 후, 신라의 방어력이 서변에 집중된 틈을 타 신주·한산주 남부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신라는 두 사건 모두 ‘조공로 차단’을 명분으로 삼아 당을 개입시키려 하였다. 특히 643년 사건은 신라 서변 40성 및 대야성 함락 이후 사건이며, 중고기 신라가 맞은 최대의 위기였다. 이로 인해 643년 사건은 고구려·백제를 한통속으로 몰아 당을 개입시키려 한 신라의 외교적 술수가 복합되어 나타났다. 두 사건은 당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백제의 의도가 작용하며 무력시위 후 철병 및 한산주 남부 공격 후 철병으로 종결되었다. 백제는 두 사건으로 신주·한산주 공격 의지를 드러내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당항성 일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였으므로, 두 사건은 당항성 육방 체계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한산주 남부 공격이 강화되는 649년 이후에도 신라가 당항

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당항성의 海防 체계에 대한 자료는 적지만, 당항성의 별칭인 ‘海門’의 의미와 당항성(현 당성) 일대 도서 환경을 분석해 접근하였다. 현 당성 일대는 근대 이후 간척으로 인한 현상변경이 많지만, 전근대에는 조차가 심해 남양 앞과 당항성 반경 3km까지 바다가 들어왔다. 당성은 남양반도에서 봉화산(168.5m) 외 가장 높은 산인 구봉산(158.5m)에 축조되었다. 당성은 반경 10km 내 남양반도의 교통로를 통제하며 조망을 침해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대부도~마산포 해역과 대부도~제부도~궁평항 해역을 직접 통제하였다. 따라서 당항성(당성)은 남양반도~아산만 일대를 통제하는 해문이었다.

555~558년 대중 외교 창구로 경기만·교동도·강화도·서울 등이 아닌 당항성이 선정된 것은 2가지 이유에서 강화만~경기만~서울보다 덕적군도~남양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첫째, 전자보다 후자가 방어 가능 해역이 넓고, 방어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는 덕적군도가 경도와 약간 평행하게 놓여 있어 서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하며, 덕적도~자월도~영흥도~대부도가 위도와 평행하게 놓여 있어 북쪽에 일종의 자연 전선을 형성한다. 둘째, 전자보다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이 서쪽으로 더 넓게 펼쳐져 있고, 중국과 관계를 맺기에 유리하다. 양자 모두 중국으로 향해하려면, 연평도→옹진반도를 거쳐야 한다. 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불음도이고, 후자의 방어 가능 해역에서 서단의 섬은 덕적도이다. 덕적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는 불음도→연평도 간 직선거리보다 15.2km가 많다. 그러나 당항성→덕적도→연평도→옹진반도로 진입하면 고구려의 위협·감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축소되었고, 기밀 보장이 쉬워 사행·군사행동에 유리하였다. 이것

은 660·668년 신라-당이 덕적도에서 합세한 이유와 직결된다. 양국 군이 덕적도에서 합세해 신라-당 연합군의 軍期·목표 등을 감추며 공격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삼국 통일전쟁의 전황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당항성을 해문으로 부른 시점은 병부의 속사로 선부서를 둔 583년으로 이해된다. 선부서는 수군의 군정권, 수군·병선군 운용, 해운을 맡는 관청으로, 신라의 해양 국경선 확대와 궤를 같이해 정비되기 때문이다. 당항성 관리의 중요성이 583년 선부서 설치의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고, 이후 신라 대중 외교의 주요 목적이 청병으로 변화하며 당항성은 해문이란 위상을 굳혀갔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마립간시기 이래 유지된 “設關守備”를 위주로 구축되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는 방어·경계 등을 수행하는 해방의 거점이었다. 당항성 일대의 도서를 이어보면, 당항성 북쪽·서쪽에 일종의 ‘가상 內海’를 설정할 수 있다. ‘당항성 북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된다. ‘당항성 서쪽 가상 내해’는 당항성 반경 10km 안·밖으로 세분되며, 반경 10km 밖 내해는 덕적도~이작도~승봉도~풍도~대난지도를 잇는 선 기준으로 동·서로 세분된다. 따라서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가상의 2중 내해(북쪽·서쪽 내해)’를 기준으로, 2중 내해에 5개의 해역을 세분하여 구축되었다. 5개 해역의 방비를 위해 2개 지점(덕적도와 화랑진 혹은 마산포)이나 3개 지점(덕적도·화랑진·마산포)에 대규모 수군 기지·정박 시설 등을 갖추고, 수군·병선군을 주둔시켰다.

555~558년 당항성을 둘 때는 ‘가상의 2중 내해’를 골격으로 하는 당항성의 해방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당항성의 해방 체계는 선부서·선부 정비가 시작되는 583년부터 구축되었고, 삼국 통일전쟁·나당전쟁을 거치며 강화·완비되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北齊書』 『北史』 『新唐書』 『資治通鑑』  
(中國 正史·『資治通鑑』은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참고)

[後漢]蔡邕, 『獨斷』(판본 : 김만원, 『文淵閣欽定四庫全書本-독단·고금주·중화고금주 역주』, 서울: 역락, 2019)

[南宋]劉義慶, 『世說新語』(판본 : [송]유익경 찬 / 양 유효표 주 / 김장환 역주, 『세상의 참신한 이야기-세설신어 3』, 서울: 신서원, 2008)  
<http://uci.or.kr//G901:A-0006219106>

[唐]許敬宗 篇, 『文館詞林』(판본 : [唐]許敬宗 篇 / 羅國威 整理, 『日藏弘仁本文館詞林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1)

[宋]贊寧, 『宋高僧傳』

[元]曇噩, 『新修科分六學僧傳』

[朝鮮]洪聖民, 『拙翁集』

[朝鮮]韓百謙, 『東國地理志』

[朝鮮]韓鎮書, 『海東繹史續』

[朝鮮]金正浩, 『大東地志』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19-덕적도 I』,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1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8.

漢陽大學校 博物館·華城郡, 『唐城-2次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1.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제3차 발굴조사(2015년~2016년)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8.
- 화성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唐城-4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9.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5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6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1.
- 화성시·한양대학교 박물관, 『唐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3.

## 2. 저서

- 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서울: 일조각, 2012.  
<http://uci.or.kr//G901:A-0006418140>
-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서울: 一潮閣, 1997.  
<http://uci.or.kr//G901:A-0008478864>
- 김부식 지음 /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http://uci.or.kr//G901:A-0006492644>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2-번 역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379942>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주 석편(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379942>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http://uci.or.kr//G901:A-0006241602>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華城市史 I -충·효·예의 고장(乾)』, 화성시, 2005.  
<http://uci.or.kr//G901:A-0006103992>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삼국의 쟁탈과 고려 지방사회의 성립』, 화성시, 2020.

### 3. 논문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http://uci.or.kr//G701:B-00052468035@N2M>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21(2011).

<http://uci.or.kr//G901:A-0003463540@N2M>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 34(2015).

<http://uci.or.kr//G901:A-0003805672@N2M>

도도로키 히로시, “신라 북요통 복원 서설”, 『아시아리뷰』 8-2(2019).

<http://doi.org/10.24987/SNUACAR.2019.02.8.2.139>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대당외교-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

<http://uci.or.kr//G901:A-0002359579@N2M>

박종욱, “7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와 백제 의자왕대 한강유역 공격”,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2@N2M>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인식”, 『사학연구』 141(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648795@N2M>

아카바메 마사요시(赤羽目匡由) 저 / 김선숙 역, “8세기 중엽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의 통교관계-『三國史記』 인용, 賈耽 『古今郡國縣道四夷述』 逸文의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32(2008).

<http://uci.or.kr//G701:C-00056343242@N2M>

윤경진, “7세기 초 신라 당항성(党項城)의 위치 재론(再論)-‘당성(唐城)’ 설 비판과 ‘한강(漢江)’설 제기”, 『역사와 실학』 76(2021).

<http://uci.or.kr//G901:A-0010575210@N2M>

- 윤경진, “삼국-신라후기 한강 항로의 운용”, 『歷史學報』 253(2022).  
<http://uci.or.kr//G901:A-0010705887@N2M>
- 윤성환,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軍史』 110(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0.1>
- 이상훈, “신라 장구진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 『北岳史論』 15(2022).  
<http://uci.or.kr//G901:A-0010949477@N2M>
-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1980).  
<http://uci.or.kr//G901:A-0000444444@N2M>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2009).  
<http://doi.org/10.22827/seoul.2009..73.003>
- 전덕재,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2013).  
<http://uci.or.kr//G901:A-0003482513@N2M>
- 전우식, “백제 위덕왕대 대신라 정책의 전개와 결과”, 『한국학논총』 32 (2009).  
<http://uci.or.kr//G901:A-0002766142@N2M>
- 정덕기, “신라 上古期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于山國 征伐”, 『新羅史學報』 50(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418753@N2M>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a)).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985571@N2M>
- 정덕기,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의 신라 학술 인식과 新 지식인 元曉”, 이영호·정덕기·정동락·박광연·배상현·김영미 편, 『시대를 앞서간 고승 원효』, 경산: 도서출판 온샘, 2021(b).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7909401@N2M>
- 정덕기, “신라 上·中代 船府(署)의 정비와 水軍”, 『한국고대사탐구』 38(2021(c)).  
<http://doi.org/10.35160/sjekh.2021.08.38.85>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新州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http://uci.or.kr//G901:A-0011027778@N2M>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椴峇城 전투와 功勳의 逆相續”, 『北岳史論』 18 (2023).

<http://doi.org/10.37288/bukak.2023.18.5.151>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2016).

<http://doi.org/10.23024/pah.2016..47.59>

최희준, “644년 당의 대고구려전 파병 요구와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2022).

<http://uci.or.kr//I410-ECN-0101-2022-911-001505346@N2M>

許重權·丁德氣, “602년 阿莫城 戰鬪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軍史』 85(2012).

<http://doi.org/10.29212/mh.2012..85.29>

황보 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軍史』 96(2015).

<http://doi.org/10.29212/mh.2015..96.135>

황보 경, “신라의 安城地域 진출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5(2017).

<http://doi.org/10.35160/sjekh.2017.04.25.181>

황보 경, “화성 당성과 주변 유적의 성격 및 경관 고찰-신라~남북국 시대를 중심으로-”, 『고문화』 93(2019).

<http://doi.org/10.23072/kmh.2019..93.002>

황보 경, “용인 할미산성과 주변 신라 유적과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62(2020). <http://doi.org/10.23024/pah.2020..62.77>

內藤雋輔,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頌壽紀念史學論叢』, 京都: 弘文堂書房, 1927; 『朝鮮史研究』, 京都: 東洋史研究會, 1961.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964@N2M](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964@N2M)

榎一雄, “賈耽の地理書と都里記の稱とに就いて”, 『榎一雄著作集 7』, 東京: 汲古書院, 1994.

#### 4. 인터넷자료

구글 어쓰(<https://www.google.co.kr/intl/ko/earth/>)(검색일 : 2023.06.16).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대동여지도』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검색  
일 : 2023.06.16).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검색일 : 2023.06.16).

한국고전번역원, “남양계고요람, 계고요람”, 고전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dir/list.jsessionid>)(검색일 :  
2023.06.16).

화성시, “海門里·海門驛·마산포”, 디지털화성시문화대전  
(<http://www.grandculture.net/hwaseong>)(검색일 :  
2023.06.16).

대만 中央研究院 兩千年中西歷轉換(<https://sinocal.sinica.edu.tw/>)  
(검색일 : 2023.06.16).

(Abstract)

## Reorganization of Sinju and the Defense System of ‘Sea Gate’ Danghangseong Fortress in Silla from the 6th to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ies

Jung, Duk-gi

The study examines the official defense system of Danghangseong Fortress in Silla from the 6th to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ies by analyz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Sinju(新州) and the environment of insular areas around Dangseong Fortress. The fortres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connecting Silla and China, in other words, the ‘sea gate (海門)’ of Silla.

From 555 to 558, Silla established Danghangseong Fortress as a diplomatic channel to China and its defense system wa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Sinju. The provincial capital of Sinju was Namcheon (南川) from 568 to 603. Until 648,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Danghangseong Fortress defense system was to assume Baekje as a major enemy nation and to build a defense system between Namcheon and Gukwon-sogyong (國原小京).

The land defense system maintained its basic posture until 648, but was more reinforced when Baekje showed its willingness to attack Sinju and the southern part of Hansanju (漢山州) in 627 and 643. The sea defense system on the other hand can be approached by analyzing the environments of the islands around Dangseong Fortress. The islands were used as a base for the defense of the sea such as resistance and vigilance. The sea defense system was established by setting a ‘virtual double inland sea’ and then subdividing it into five sea sectors.

Keywords : Danghangseong Fortress, Sinju (新州), sea gate, sea defense, virtual double inland sea

